

바나나 재배과정에서 나타난 제주농민의 의식에 관한 고찰

진관훈¹⁾

요 약

이 글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재배 붐을 이루었던 바나나 재배과정에서 나타난 제주도 농민의 의식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나나는 재배기간이 5~6년 간에 불과했고 재배지역도 서귀포시 지역과 남제주군 남원읍 지역에 편중되었으며 참여농가 역시 감귤이나 타작물에 비하여 비중이 크지 않았으며, 재배초기부터 정부의 재배 억제정책 등으로 재배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의 일반적 평가는 다소 왜곡된 점이 없지 않다. 즉 부농에 의한 투기적 재배이다라거나 바나나 소득으로 인해 과소비, 향락소비, 경제적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현재까지도 인식되어 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귤 경제의 확산과 안정속에서 더 이상의 시도를 회피하고 유통측면에만 관심을 두는 등과 같은 '농업퇴보'의 양상이 만연한 제주도 전체의 분위기 속에서 바나나 재배의 시도는 그 결과나 경제적 손실을 떠나서 또 다른 평가를 넣기에 충분하다.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실제로도 농민은 농업의 주체자이면서 주체자다운 자기역량을 발휘할 능력이나 기회를 상실한 채 외부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바나나 재배과정에서 보여준 제주도 농민의 의식은 이런 소극적 차원에서 탈피하여 발전적이고 능동적인 농업경영의 진정한 주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점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입증해 보려는 것이 이 글이 주된 흐름이다.

즉 바나나 재배과정에서 나타난, 크게 나누어, 작물선택시, 예고되었던

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위기상황이 도래시, 바나나 재배가 좌절로 막을 내렸을 때 등 각 상황에서 보여준 농민의식을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나나 재배농민은 수입개방이라는 확실한 위협요소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위협요소를 극복하거나 가능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노력을 통해 자기결정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노력은 농업생산 내적인 문제와 외부요인에 대한 문제로 대별되는데 정부에 대한 억제정책의 개선요구, 수입개방의 충격을 완화시킬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주장, 요구하였고 농업생산 내적으로는 종자선택에서부터 생산비절감을 위한 시설사용의 효율화, 노동력 절감시도, 유통합리화와 같은 측면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해나갔다. 그러는 과정에서 농민들은 수입개방이라는 한계상황을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확신도 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1991년 수입개방이 되자 일시에 생산기반을 잃고 좌절하게 되는 사태가 생겨났다. 이 사태는 바나나 재배농민뿐 아니라 타농민 전체에 있어서도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결과에 대한 평가는 바나나 재배농민, 제주도 전체(언론을 포함한)의 일반적 평가, 바나나 재배농가 지역주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즉 바나나 재배농가는 생산기반을 통채로 잃는 엄청난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나 재배과정에서 노하우나 시설의 잔존 등으로 위안을 삼고 충분히 경험할 가치가 있었다는, 다시말하면 최초의 자기주도적 의사결정에 대한 자기합리적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근 지역민 역시 제주도 전체의 일반적 평가 즉 투기적 재배, 과소비, 향락소비, 부채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바나나재배농가의 부채부담에 대한 태도 등에서 볼 때 다분히 공동체적인 관용을 보여주었다.

바나나 재배는 감귤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감귤경제와의 연속선상에서 감귤경제에서 축적된 자본과 영농기술이 더 나은 시도에 대한 욕구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순히 고소득을 노린 투기성 재배라는 인식은 재고되어야 하는 데 투기적 시도를 할만큼 단순한 의사결정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바나나 재배의 결과 나타난 몇 가지 새로운 현상은 정부, 기업에 대한 인식, 소비와 근로에 대한 태도 변화, 마을내 조직 변화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귤경제와는 다른 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바나나 재배의 의의를 살펴보면 물론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연관산업의 활성화, 하우스농법기

술 습득, 경영의 노하우 습득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순간적이고 결과가 실패로 끝난 일과성의 작물재배로 평가할 수는 없다. 바나나 재배는 제주도 농민이 최초로 자신의 주체적이고 발전적 역량에 의거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실천적 자기훈련과정이었다고 보아진다.

감귤재배로 인해 안정적 분위기의 확산, 새로운 시도 회피경향과 같은 현재에 있어서 바나나 재배의 시도는 불확실성속에서의 과감한 투자,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자발적, 주체적 자기역량을 가지고 정책의 무관심, 억제 속에서도 종자선정에서부터 재배기술개발, 노동력이 효율적 배치시도, 생산비절감, 출하 및 유통합리화, 농촌소득의 적절한 분배와 소비, 소득의 재투자로 이어지는 전체적 영농과정에 있어서 종전보다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제주도 농민의 경영의식의 발로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것은 바나나 재배과정에서 나타난 제주도 농민의 주체적 발전적 경영의식이 현 감귤경제의 막다른 위기를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I. 서론

이 글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서귀포지역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재배붐을 이루었던 바나나 재배과정에서 나타난 제주도 농민의 의식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바나나는 불과 5~6년 간의 짧은 기간동안 제주도의 일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다가 수입개방화의 물결과 함께 일거에 생산기반을 잃고 사라져버렸다. 바나나는 타작물에 비해 단기간에 재배가 이루어졌고, 재배지역의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 당시는 물론 재배 종료후에도 그 파장은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컸다고 할 수 있는데, 바나나 재배는 당시 알려졌던 데로 단기간 고소득을 기대한 투기성 재배라는 측면도 지적되고 있지만 그보다도 바나나 재배가 가지는 제주도농업에 있어서의 경영사적 의의도 내재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농촌사회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농업경제에서의 처방이란 크게 두가지 이론적 틀로 설명되어져 왔다(최양부 1989: 6-10). 우선 근대경제학의 신고전파 경제이론들의 경우 농업경제의 산업적 특수성 - 예를 들면 비탄력성, 자원이동의 제약성 등 -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의 실패나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이윤극대화의 실현을 제약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농가는 일단 자본주의적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해야만 하는 경제인이므로 규모경제론적 시각에서 경쟁적 시장조건의 개선이나 평균이윤의 실현을 위한 농산물가격 보장, 또는 규모확대를 위한 구조개선 등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제에 대한 정책처방이란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관점에서 이론적 결과 - 이윤극대화, 완전경쟁시장의 실현 - 를 현실적으로 가능케 할 수 있는 조건의 충족이란 관점에서 찾으려 한다.

한편 정치경제학의 경우 구조적, 제도적, 역사적 또는 전체적 관점에서 동태적 관계 그 자체의 성격파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농업경제의 전개는 산업화를 위한 자본축적의 수단으로서 저임금을 가능케 하는 저농산물가격에 의한 농민의 빈궁화, 농업생산력 발전의 정체, 농업위기(농업공황)를 주요관심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배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부등가교환에 의한 농민잉여의 독점자본에 의한 수탈이 강조되고 이러한 것들이 구조적, 제도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위 이론적 틀에 기인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농민은 농촌사회의 주체자이면서도 주체자 다운 역량을 가지지 못하고 외부요인에 의해 언제 어떤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는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되어 온 측면이 많다.²⁾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대한 개인적 의구심에서 출발한다. 농민

2) 이론적 배경으로서 농민을 개념정의할 때 농민은 생계유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계산하고 전략을 짜는 등 적극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실제의 농민은 시장구조에 종속되어 가고 농촌사회는 사회·문화적으로 부정적 측면이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다.

은 농업경제의 많은 측면에서 주체적인 의사결정자가 되지 못하고 항상 수동적 입장에서만 행동해야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혹여 그렇지 않았던 사례는 없었는가.

본 글은 바나나 재배의 경우를 예로 들어, 바나나 재배과정에 나타난 제주도 농민의 의식을 고찰함으로써 해서 농업경영³⁾의 참된 주체자로서 농민의 존재를 구명해 볼 생각이다.

II. 바나나 재배과정에 나타난 농민의식

1. 작물선택에서 나타난 농민의식

바나나 재배는 작물선택에서부터 감귤과 달랐다. 감귤의 경우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주곡중심의 작물 재배, 저생산,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자급적이고 영세한 수준의 농업경영방식에서 탈피하고자 당시로서는 고소득이며 농업생산력, 토지생산성 등 전반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작물로 정부에 의해서도 대대적으로 장려되어왔다. 그러나 바나나는 정부의 정책으로 재배초기부터 재배가 억제되었던 작물이다.

바나나는 식용가능부분 1kg당 약 600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으며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을 함유하고 있어 주스, 아이스크림에 이용하고 분말은 요리에 넣거나 물, 우유에 녹여먹기도 한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과일로서 갖추어야 할 영양가는 적으나 위장장애자의 음식조절용 식품, 위궤양 치료 등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과일이다.

바나나의 재배 역사를 보면 바나나는 1961년 경상도에서 시범적으

3) 농업경영을 정의하면 “농업자가 일정한 경영목적 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동력과 토지 및 자본재(농기구, 비료, 사료 등)을 이용하여 작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사양 및 농산가공 등을 함으로써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이용, 판매, 처분하는 조직적인 수지경제단위가 농업경영이다.”라고 할 수 있다. (정용복 편저 1989: 6)

로 재배되어 온 이후 제주도에서는 1966년 시험재배하기 시작했고 영리목적으로는 1975년 본격적인 재배에 들어가 1978년 출하하여 시장개척에 들어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84년 재배총면적 2만 5천평에서 1985년 그 10배인 25만평, 1986년 50만평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여, 1989년말 총 4백43ha에서 5백1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역별 재배현황을 보면 1986년 기준으로 볼 때 서귀포시가 35ha, 남제주군이 33ha, 제주시가 0.5ha로서 주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특히 남원읍에서 재배되었다.

<표 1>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배초기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재배를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정부가 재배를 억제할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국제경쟁력 미약이었다. 바나나의 경우 외국 열대지방과 비교하여 볼 때 도저히 가격이나 품질 모든 면에서 경쟁이 될 수 없고 사과나 배의 구상무역 대상으로서 바나나 수입은 필수적이라는 주장⁴⁾이었다. 또한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유통소비 억제정책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하우스시설을 통해 작물을 재배할 경우 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화학성분 물질의 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증가한다는 것과 심지어 바나나 재배를 위해 하우스시설 근처에 야적해 놓은 퇴비 등이 마을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도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유·무형의 억제방침은 바나나 농가에게는 재배초기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정부의 억제방침으로 정부로부터의 초기 시설자금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바나나 재배용 하우스설비의 초기비용은 평당 7만원선으로 알려졌다. 초기 재배농가의 경우 평균 재배면적이 300평 혹은 500평 정도에서 시작하여 1,000평 정도로 확장되었는데 500

4) 사과, 배의 수출은 물론 바나나의 수입을 주도했던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주장에 의하면 사과, 배 등이 수출단가와 수출실적이 늘어나 재배농가의 수익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위하는 한편 바나나 수입으로 150억원의 판매이익을 올려 농안기금으로 조성한 것은 농민을 위한 국가시책으로 일석 이조의 효과를 올렸다고 홍보하였다(제주신문 1989. 5. 1일자).

평을 기준으로 할 때 시설비용은 3,500만원이고 1,000평의 경우 7,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었다. 물론 알려진 바 대로 초기에 바나나 재배를 시작한 농가중 상당수는 감귤 재배에서의 축적된 잉여자본을 가지고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여타농가나 차지농 모두 상당한 자금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자기자본 이외에 모자라는 부분은 농협이나 마을금고에서 정책 자금이 아닌 자체자금으로, 최고한도가 1,000만원인 자금을 담보 혹은 보증을 세워 대출하거나 사채로 조달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였던 것으로 보아진다. 초기시설자금의 확보에서뿐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바나나 재배시설인 하우스용 전력 및 용수에 대해서 비싼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였다.⁵⁾

<표 1> 바나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단위:ha,MT)

연 도	면 적	생산량
1976	0	0
1981	0.5	10.2
1986	168	3,316
1990	441	21,770
1991	296	12,270

* 자료 : 제주경제지표(제주도 1992)

또한 1986년 동력자원부의 유류소비 억제정책으로 농업용면세유의 혜택은 전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타지역에서는 50%

5) 당시 한전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 및 과수재배용 양수 및 배수용펌프나 양잠 및 양어에 직접사용하는 등의 전력은 농사용전력에 해당하고 그 외의 농·임·어업에 관련된 전력은 산업용으로 규정하여 요금을 부과하였다. 이럴 경우 농사용 전력요금은 양어장의 경우 기본요금이 kw당 1천원인 데 비해 바나나 재배에 적용되는 산업용전력요금은 kw당 2천8백5십원으로 3배가량 비싸고 사용전력에 대한 요금도 2배가량 비싸다. 이에 대해 당시 제주바나나협회는 '대기업 양어장은 값싼 전력요금을 적용하고 바나나 재배농가에게는 비싼 요금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한전측에 제주 특성에 맞는 적용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는 규산질비료에 대해서도 전혀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토양지력증진용 규산질비료를 국고보조를 사용농가에 싼 값에 공급하였으나 바나나농가에 대해서는 토양성분에 규산질함량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⁶⁾

하지만 1991년까지 농지세는 풍.흉작에 상관없이 징수하여 - 최고 600만원까지 납부한 농가도 있었다 -. 농가들의 세부담을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억제책과 함께 바나나 재배농가의 주위의 시선도 고운 편은 아니었다. 즉 단기간 고소득을 노리는 투기성재배라는 질시와 함께 그로 인한 부의 지역적 편중을 이유로 들어 우려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배타적 분위기 속에서도 바나나 재배는 급속도로 확산되어 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풀어 갈 차례이다. 바나나 재배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감귤경제와의 연관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975년 이후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 감귤에 대해 새로운 대체작물을 모색하던 중 고소득이면서 감귤에 비해 자금순환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작물이 바로 바나나이다.⁷⁾

초기재배 농가의 경우 이러한 요인으로 시작하여 타작물에 비해 고소득(1985년 기준으로 10a당 감귤 44만원, 파인애플 1백92만원, 키위가 2백32만원, 바나나가 9백53만원으로 바나나 소득은 감귤 소득의 20배, 파인애플의 5배에 가깝다.)을 올린 것이 사실이다(1986년

6) 타 지방인 경우 25kg 한 포대 5백91원, 도내 농가 1천6백원으로 3배 정도 비싸다. 도내 연간 사용량을 3천톤으로 계산할 때 연간 1억7천2백만원 추가의 부담이 발생한다.

7) 경제성 분석 (1984년 말 기준 300평당)

- ① 수입 : 27,000,000
- ② 생산비 : 5,329,437
- ③ 경영비 : 4,651,825
- ④ 소득 : 22,348,175
- ⑤ 순소득 : 21,670,563
- ⑥ 소득율 : 83%
- ⑦ 순수익율 : 80%(남인회 1985 : 181)

이전 재배농가는 2회 이상 투자자본을 회수하였다고 여겨진다). 초기 재배농가의 고소득은 인근농가들에게 급속하게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투기성 재배라는 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초기 재배농가는 기존소득과 이에 더하여 여타 자금을 동원하여 시설을 확장하여 갔고 후발 재배농가는 각종 자금을 동원하여 무리한 재배를 시작하였다.

고소득이라는 표면적 동기와 함께 또 다른 내재적 요인은 바로 감귤경제의 한계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감귤재배를 시작한 세대는 1930년 전후에 출생한 세대로 이들은 이미 감귤재배로 상당한 경제적 풍요와 안정을 경험하였고 따라서 더 이상의 무리한 확장이나 시도는 원치않았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감귤경제로 인한 지가의 상승으로 1인이 경작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경작면적(대략 3,000평 정도)을 소유하는 데 있어 예전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이 생겨났다. 이에 반해 바나나 재배용 하우스설치 면적은 부부중심의 노동력 기준으로 1가구당 500평정도가 적당하였고 그 이상은 임노동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바나나 재배지역이 서귀포지역에 밀집되어 진 이유는 서귀포 지역 지가가 타시군에 비해 최고 5배 이상 높았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서귀포시의 경우 토지 단위면적당 경제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선택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과수원경영에 있어서도 감귤과수원조성 세대인 앞세대에 비해 의사결정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지가상승요인과 감귤경제 도입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경영모색의 욕구가 결합되어 바나나라는 새로운 작물의 재배에 강한 욕구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단기간 고소득이라는 강한 재배동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단기간 고소득이라는 매력은 항상 그 이면에 높은 위험부담을(risk charge)을 동반한다. 농민들의

8) 1986년 기준 토지단위당 밭의 가격은 서귀포시가 27,567원으로 가장 높았고 남제주군은 11,333원, 제주시 9,047원, 북제주군 5,130원으로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의 경우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입장에서 보면 고소득이라는 최고의 의사결정동기가 존재하지만 이에 따르는 높은 위험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 만일 고소득이라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즉 위험부담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완화시켜 나가면서 자신의 결정을 확고히 해나가겠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투기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 투기라기보다는 위험부담율이 높고 그 위험부담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긴 투자라는 적극적 행동양식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다. 투자란 자기자본, 또는 부의 현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투자에는 반드시 기대되는 이익과 위험이 존재한다. 투자자는 기대이익과 위험 부담능력을 분석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위험(risk)과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고 할 수 있다.⁹⁾ 농업경영에 존재하는 위험과 불확실성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생산의 불확실성, 유통의 불확실성, 자금의 불확실성이 그것이다. 바나나 재배의 경우에도 이 세가지 모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 무지로 인한 생산의 불확실성을 첫째로 들 수 있는데, 당시 바나나 재배기술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억제시책으로 인해 정부의 기술 지도는 애초부터 불가능하였고 여타 연구기관이나 대학등에서도 별다른 기술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일본이나 대만에서 나온 영농교본을 참고로 직접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술을 습득해 가는 것이 전부였다. 실제로 바나나 재배 초기에는 종자

9) 위험과 불확실성의 의미는 구별되어 사용되어진다. 즉 위험이란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 각각의 확률을 알고 있으나 어느 결과의 확률이 실제로 나타날지를 모를때를 말하며, 불확실성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거나, 그 확률을 모르거나, 또는 동시에 둘다 모르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모를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경우 불확실성과 위험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임으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기 보다는 서로 상통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위험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택에서부터 하우스시설관리, 토양시비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두 번째로 자금운영에 따른 위험요인이다. 하우스시설 비용이 고가이었던 탓으로 자금마련에서부터 자본회전이 원활하지 않았을 경우, 좀더 극단적으로 자본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재배농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채문제 등은 커다란 위험요소였다. 마지막으로 가격의 불확실성과 유통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들 수 있는데 농산물 가격결정이나 유통과정에 농민보다는 정부나 그외의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위험요인은 전체경제 상황의 변화, 수출입동향과 이에 따른 각국의 정책의 변화 등을 정확히 모른다는 데 있다. 그러나 바나나의 경우 수입이 확실히 되었던 시점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다소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예견된 위험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요구하였고 그 대응에 따라서 이 위험요소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농업생산에 있어서 시차(time-lag)요인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의 불가능성으로 인해 모든 농업경영에는 위험과 불확실성의 요소가 개재되어 있다. 따라서 유능한 농업경영자는 이러한 위험한 불확실성의 전제하에서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서 즉시 새로운 정보, 더욱 정확한 정보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즉각적으로 변경해 나갈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심영근·이상무 1995: 393~397).

바나나 재배농가의 경우 비록 형태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상당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해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나 재배가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이들 재배농가가 위험요인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감으로 해서 자신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확신을 심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농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자.

위험요인을 감안한 의사결정 방식에는 크게 6가지가 있다(심영근

· 이상무: 400~401). 첫째 규칙은 최고최저(maximax) 규칙이다. 이는 각각의 대안 중에서 가장 나쁜 경우의 예상결과만을 비교하는 것인데, 농업경영자가 어떤 대안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가장 나쁜 경우가 일어난다고 예상될 때에 적용하는 규칙이다.

바나나의 경우 이미 수입이 결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외국수입 바나나와의 경쟁을 고려해야 했다. 즉 생산원가에서부터 월등한 차이가 있는 외국산 바나나가 수입되었을 경우가 제주도내 바나나 재배 농가에게는 가장 최악의 상태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 최악의 상태에서 최저예상치가 가장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제주도 바나나 재배농가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규칙은 최고최고(maximax)인데 이는 앞서의 방법과 반대로 각각의 대안 중 가장 좋은 경우의 예상결과만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셋째 규칙은 불충분한 정보의 규칙인데, 이는 예상되는 결과의 확률을 알 수 없을 때 쓰인다. 이 경우 각각의 확률이 같다고 가정하여 각 대안별 예상결과에 따른 동일 확률의 가중평균, 즉 단순평균을 기대가치로 산출하여 비교하면 된다. 넷째는 기대가치의 극대화규칙인데, 이는 예상되는 결과의 확률을 알고 있을 때 가중평균에 의한 각 대안별 기대가치를 비교하여 최고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최고확률의 채택규칙인데 이는 가장 확률이 높은 예상 결과의 경우에 예상수익이 가장 높은 쪽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예상수익의 규칙인데, 어느 경우에서나 최소한 어느 정도의 예상수익이 있어야만 농업경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경우에 선택되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 바나나 재배농가의 경우 첫째 규칙과 마지막 규칙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내한성이 강한 종자선택, 연료절감, 노동생산성 증대, 환풍기 등의 열효율증대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해서 궁극의 목적은 원가절감을 이루 하여 외국 수입품과의 가격경쟁면에서 최소한의 경쟁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외국산 바나나의 수입으로 제주도산 바나나의 가격이 하락된다 하더라도 일정 생산비수준까지만 유지되면 영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럴려면 가능한 한 최

대한도로 한계생산비, 평균생산비, 총생산비를 계속 낮추어 나가야 했던 것이다. 문제는 당시 바나나 재배농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그 증거로 농업진흥청이 1990년 6~7월 도내 바나나 재배농가 140농가를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타작목으로의 전환은 1995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의하면 바나나 재배농가는 바나나 손익분기점인 1kg당 1,480원 이하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재배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물론 이들 농가는 1991년 무차별 바나나 수입이 계속되자 일시에 타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폐농하는 사태가 벌어졌다.¹⁰⁾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초기 재배농가의 30%정도가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하였고, 자기자본 비율이 50% 미만인 농가의 경우 정부지원이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바나나 재배는 자신과 가족의 농업경영 전부를 거는 심각한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농민은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비록 확률이 낮을 지라도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향성위험회피(downside risk aversion)현상이라고 하는데 극단적 위험회피동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nezes 등). 농민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예기치않은 변수에 의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economic disaster)을 가져옴으로써 심한 경우 재생산 기반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농민들의 일반적 정서를 고려해 보았을 때 바나나 재배농가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바나나 재배농가의 행태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되어야 한다. 즉 시기적으로 초기에 재배를 시작했던 그룹 즉 적어도 1987년 이전에 상품을 출하하였거나 최소한 시설을 마친 그룹과 1987년 이후에 재배에 참여한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 제주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1년 2월 기준, 당초 타작목전환 희망 농가가 2백46농가 72.3ha였으나 1백46농가 42.6ha가 추가되었다고 한다. 이들 농가에게는 ha당 1천5백만원씩 연리 8%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의 농촌발전기금을 지원해 주도록 조치하였다.
(제주신문 1991. 1. 2.일자)

초기 재배농가의 경우 후발 참여농가에 비해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정보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억제정책 말고도 종자선택에서부터 하우스관리, 영농기술, 출하 등 모든 면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고소득의 보장이란 그리 손쉬운 게 아니었으며 높은 시설자금과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바나나를 재배하는 것은 농민 자신의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초기 재배농가의 경우 부농층에 속하는 농가가 많았다는 것은 자금면에서 다소 우월했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 자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물, 새로운 농업경영방식, 자율적 의사결정 등에 대한 도전 욕구가 하향성 위험회피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했다는 반증이 된다.

이상의 내용만 보더라도 초기 재배농가인 경우 단순히 고소득을 노린 투기적 재배라고 보기보다는 감귤 대체작물 모색, 지가상승으로 인한 고소득작물 모색 등의 현실적 상황과 감귤에서 축적된 자본 또는 감귤경영에서 얻은 경험과 자신감 등이 정부의 바나나 재배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되는 강한 욕구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87년 이후 참여농가는 초기 재배농가와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초기재배농가의 결실을 간접경험함으로써 해서 위험발생확률에 대한 자체적 축소과정을 거쳤고 오히려 부의 재편 가능성(구체적으로 말하면 단기간 고소득)에 대한 강한 욕구가 바나나 재배과정에서 예견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선택은 새로운 작물과 경영방식에 대한 모험적이고 도전적이며 선구자적인 행위가 아니라 다소 무임승차식(free riding) 측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농가는 초기재배농가의 실패담을 열심히 수집하여 실패 없이 바로 성공의 경우로 진입하려고 노력하였고 그것이 가능하리라 여겼다. 즉 최대한의 후발효과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 두 그룹의 농가 모두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요인은 정부의 억제정책이었다.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일단 재배를

시작한 이상 초기 재배 시작 농가나 후발 참여농가 모두 정부의 억제정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나나 경제활성화의 최대 과제였던 셈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난제가 외국산 바나나 수입개방이었는데, 이에 대해 재배농가들은 스스로 대응전략을 세우는 한편, '설마' 하는 자위의식¹¹⁾ - '설마 정부가 우리를 다 망하게 하겠냐는 식'의 자위인데 일반적으로 농민은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업을 최소한 정부가 해치지 않는 것이라는 묵시적 확신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거기에다가 당시 대선과 맞물린 선심성, 공약성(空約性) 발언¹²⁾이 낱말은 바나나 재배농가들이 불안한 위협 요소들을 상당부분 완화시켜 갈 수 있는 계기가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재배농가들은 바나나 수입개방 이후에도 가격경쟁을 시도하여 바나나재배를 계속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최대의 난제였던 정부의 억제정책에 대한 대응전략과 함께 농업생산 측면에서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생산원가를 낮추려는 시도, 바나나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 경주, 특히 바나나 재배시설을 둘러싼 인급산업, 예를 들면 환풍기, 열풍기, 비닐, 설치기술 등에서도 함께 개선되어 감을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재배농가들은 정부의 억제정책, 외국산 바나나 수입예고 등 현실적인 불안요소를 나름대로 최소화해 가면서

11) 바나나 수입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던 1990년 9월까지도 당시 제주도 농촌진흥원 시험국장은 제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바나나 가격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계속 재배를 하고 그 다음 하우스시설을 가지고 대체가능한 작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제주신문 1990. 9. 2일자). 이러한 발언은 바나나 재배농가들로 하여금 수입시점까지도 타작물로 전환하지 않고 망설이게 하는 부분적인 요인이 되었다.

12) 1987대선 당시 유세차 입도한 노태우 후보는 바나나가 수입개방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며 바나나 수입을 최대한 늦추어줄 것을 약속하였고, 1990년 강연차 입도한 당시 신구범 농림수산부 차관장은 1991년도 바나나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바나나의 경우 산업용유류등의 농업용전용이나 전력요금인하, 관세부과를 통한 수입가격인상 등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또한 산업피해구제신청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내적으로는 생산성 증대, 노동력 절감, 원가절감, 경쟁력 확보 등 농업생산적인 측면에도 노력을 기울여 닥쳐올 위기에 대처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

2. 예고된 위기상황에 대한 재배농가의 대응

정부는 초기부터 재배억제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산 바나나수입을 개방하여, '흑시나' 했던 제주도 바나나 재배농가의 희망을 확실히 단절시켰다. 물론 이 상황은 예고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약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질 수 있었겠지만, 앞서 말한 '설마했던', 그리고 적극적 대응공세로 충분히 맞서볼만 하다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바나나 재배농가는 충격이 컸다. 예고된 위기상황의 현실적 도래로 인한 충격적 상황에서 제주도 바나나 재배농가는 어떠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실천하였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이 다음 과제이다. 바나나 재배농가가 행한 대응전략과 극복노력은 앞서 지적한 예상된 위험요소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외국산 바나나의 수입개방 상황에서도 정부의 억제정책의 다소간만이라도 변화한다면-장려까지는 아니더라도 묵시적 동조만이라도-아직까지도 충분히 경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재배농가가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점은 정부의 억제, 혹은 미온책에 대한 조직적인 개선요구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제주바나나협회 - 후에 협회가 이원화되면서 제주바나나협회에서 분리되어 나간 한라바나나협회도 가세 - 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이다. 우선 경유소비 억제정책(동자부의 유류소비 억제정책에 대한 대응논리)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수송비를 고려할 때 바나나 재배에 소요되는 유류소비가 낭비가 아니다. 더군다나 토지 단위면적당 생산성과 경제성을 고려해보건대 바나나가 다른 여타 작물에 비해 적합하고 따라서 '재생산을 위해서 기름을 소비하는 것이지 단순한 소비가 아

니다'라고 주장하였다.¹³⁾ 또한 정부에서 용자해 주고 있는 시설자금의 용자를 당시 화훼와 감귤시설 재배에만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 바나나 재배농가에게도 이러한 시설자금 용자혜택을 주도록 요구하였다. 이와 아울러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외국산 바나나수입에 대한 직접적 대처방안이었다. 외국산 바나나를 수입개방할 경우, 가격경쟁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계절관세제도를 실시하여¹⁴⁾ 일단 수입하더라도 비성수기에 수입하고(제주산 바나나는 4~5월경 출하가 경제적이므로 3~4월은 수입을 않는다.) 숙기를 조절하여 출하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수입시기를 6개월 전에 예고하는 수입예고제의 실시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수입농산물에 대해 엄격한 농약잔류물 검사과정을 거침은 물론 수입농산물이 법정도매시장의 상장경매를 통해서만 시중에 유통시키도록 정부가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1991년까지의 바나나 수입물량을 1989년 5만톤, 1990년에는 10만톤 가량으로 증가시켜 수입개방에 따른 여파를 줄여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타작물로 전환할 경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외부요소에 대한 극복 내지는 개선 노력과 함께 내부적으로도 농업생산측면의 개선에 전력을 집중시켰다. 예를 들면 생산비용을 줄이고 실패확률을 줄이기 위해 종자선택에서부터 내한성이 있어 유통절약에 도움이 되는 품종을 선택하거나 하우스설비의 기

13) 이처럼 정부에 대한 대응논리를 세우는 한편 내적으로는 연료절감을 위한 노력도 행해졌는데, 실제로 이러한 노력은 열풍기제작 등에도 나타난다. 즉 열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 연료비를 절감하고 사용수명을 연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도내 열풍기 제작 및 공급의 30%를 차지하던 삼원기계의 경우 1,000평 하우스를 유지할 때 가동기간 중 연 400~500만원의 절약을 할 수 있고 평균수명도 2년 연장이 가능하게 하였다(월간 관광제주 1988. 10월호).

14) 실제로 일본의 경우 1963년 바나나 수입개방 이후 1970년대 부터는 수입관세율을 계절관세율로 전환, 국내산과일이 많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50%, 다른 계절에는 40%로 적용하여 수입억제효과는 물론 자국산 바나나 재배농가를 보호하는 효과를 누렸다.

술적 측면에서도 비용절감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를 하는가 하면 점차 부부 중심의 노동력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는 노력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바나나 재배가 종료한 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새로운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겠다. 바나나 재배의 결과 새롭게 나타난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현상으로 바나나 재배농가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상호결속의 측면을 들 수 있다.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재배규모도 커가면서 서로간의 정보교환도 외적 위험요소에 대한 공동의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원활히 이루어졌다. 초기 재배농가와 1987년 이후 참여농가는 재배기술이나 경험 축적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 초기재배농가의 경우 경험축적에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습득비용은 후발 참여농가에 비하여 상당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시장에서의 상호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의 이양은 그리 순조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농업외적인 요소에 의해 제기되어진 위기적 상황은 이들을 내적으로 상호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어 정보교류 혹은 이양을 가능케 하였으며, 재배농가 전체의 이익, 존립을 위한 억제정책의 개선요구 역시 자발적이고 조직적으로 가능케 하였다 - 물론 유통, 적립금 등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 인해 협회가 이원화되는 현상은 다른 측면으로 보아야한다-.

3. 바나나 경제의 결과

바나나 경제의 종료 이후 결과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바나나 재배에 의한 단기간의 고소득으로 인해 일시적이거나 서귀포지역에서만 연되었다고 여겨졌던 과소비, 향락소비, 그 후에 남겨진 부채증가 등으로 요약되어, 바나나 재배에 참여하지 못해 부러움 반 시세움 반으로 쳐다보던 타재배농가는 바나나 재배과정은 물론 위기상황시 재배농가들의 보여준 노력들에 대한 동정이나 격려보다는 부정적이

고 빈정거리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정적인 당시의 여론 - 신문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 등을 고려해 볼 때¹⁵⁾ -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는 다소 과장된 점이 없지 않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중음식점 증가비율이 가장 높고 전기유기장 즉 게임룸이나, 룸살롱 등과 같은 유흥음식점의 숫자는 1990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다 이후 거의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는 그다지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표 2> 서귀포시 식품접객 환경위생업소 현황

연도	전기유기장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계
1987	16	390	95	401
1988	20	410	101	531
1989	19	439	105	563
1990	19	501	113	633
1991	19	564	112	695
1992	19	637	115	771

(서귀포시 통계 1993)

바나나 경제로 인한 과소비, 향락소비 문제는 하우스시설로 인한 여타 산업에의 파급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평당 6~7만원 설치비에서 2만원 철재비, 2만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고 하우스 시설에 따르는 철재, 비닐, 환풍기, 열풍기, 퇴비, 파풍망, 운수업자, 전기업체, 보온단열재, 골조재 작업자 등 30여개 품목에 호황을 가져오고 급격한 인력난으로 인건비인상, 당일 현금지급 등으로 서귀포시 지역의 위장 취업자(주 24시간 미만의 근로자)들의 소득증대와

15) 당시 발행되었던 『월간 제주인』, 1989. 6월호에 의하면 정부가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수 있는 농정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농업도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농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여 바나나 재배농가에 대한 도내여론은 다분히 투기적으로 비추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안정이 과소비 및 향락 소비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실제로 이 당시 증언에 의하면 4인 기준 하루 밤 술값이 200만원을 넘지 못하면 대화에 끼지 못하였다고 한다 - . 따라서 바나나재배 농민들의 과소비문제보다는 인근산업의 소득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지역소비의 단기간 특수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바나나 재배의 노동력 투입형태를 보면, 감귤과는 달리 하우스내의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수차례의 긴장을 해야 하고 이외에도 태풍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 도래할 경우 거의 밤잠을 설치며 대비해야 했다. 따라서 소득이 곧바로 과소비로 연결될 여지도 적었으며, 초기 재배농가들의 투자회수분도 다시 재투자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바나나 재배농가의 과소비문제는 재고의 여지가 많다.

즉 과소비 및 향락소비의 문제는 일부분의 재배농가, 인근산업에의 과급효과로 의한 일시적 사회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바나나 재배 종료의 결과 나타난 사회적 충격으로 가장 큰 것은 바나나 재배농가의 부채증가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6년 이전에 바나나 재배를 시작한 농가인 경우 2~3회 정도 투자분을 회수하였고 1987년도에 시작한 농가의 경우 투자자본의 75%정도를 회수하였고, 1989년에 재배를 시작한 농가는 투자자본의 50%정도 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986년 이전에 바나나 재배를 시작하여 자본회수가 이루어진 농가는 그 자본을 가지고 재투자하여 재배면적을 확장시키는 데 주력하였고, 1987년 이후 재배참여 농가인 경우는 수입개방으로 투자자본 회수가 100% 미만이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실정이었으므로, 1991년 본격적인 수입개방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전재배농가가 경제적 손실, 즉 투자자본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자금손실의 충격은 심각했었다. 높은 재배 시설자금으로 인한 부담, 기술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 과정중에 발생한 손실, 경험부족에서 오는 경영상의 비효율 그로 인한 경영비과다 등은 이미 재배농가들로 하여금 상당한 자금압박요인이 되어 왔는데, 자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농업경영기반 자체

를 상실하게 했을 뿐 아니라 생존 기반까지도 위협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바나나 재배농가의 부채상환 처리과정 살펴보면 지역 금융기관 자체자금의 대출은 여유부동산 소유농가인 경우 부동산을 처분해 해결하기도 했지만, 그럴 능력이 없었던 타농가인 경우 지역금융기관 자체의 대환처리 등을 통해 계속해서 원금이 남아있으면서 이자만 갚아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1987년 이후 바나나 재배에 참여한 농가 중 자기자본이 50%미만으로 타인을 보증세워 대출하거나, 사채를 무리하게 동원하여 투자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일본이나 육지부로 야반도주하는 경우도 속출하였다.¹⁶⁾

이같은 사회적 충격과 함께 주목해야할 것은 내재적이면서 덜 강조되어왔던 것으로, 하우스 재배기술, 즉 노하우의 습득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지감귤 재배에서는 얻지 못했던 시설농법, 하우스농법의 습득이라는 점이다. 이 노하우의 습득은 바나나 재배에서 타작목으로 전환할 때 확연히 드러난다. 따라서 현재 성행하고 있는 시설감귤 등과 같은 기술농업은 바나나 재배의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나나 재배를 거쳐서 타작물 예를 들면 시설감귤, 금감, 화훼 등으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노지감귤 재배에서 바로 하

16) 필자가 조사한 서귀포시 법환동인 경우 대략 35가구가 이런 이유로 일본, 육지부로 건너가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증을 썼거나 사채를 빌려주었던 사람들은 대신 부채를 상환하고 있거나 사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나나 재배농가에게 보증을 썼다가 대신 부채상환을 하고 있거나 사채를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 주민 모두 그 이유로 인해 고소, 고발 등과 같은 사법적 대응을 모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당시 바나나 재배농가 대부분이 자금을 시설투자, 확장, 재투자, 영농비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 구성원으로써 감싸주려는 관용적 자세를 보여주었다. 감귤경제의 확산 결과 과정적인 제주도의 마을공동체가 경제적 이유에 의해 붕괴되어간다는 주장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바나나 재배결과의 처리과정에 나타난 이러한 사회현상은 색다른 느낌이 든다. 또한 바나나 재배 지역민들의 바나나 재배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제기되었던 부정적은 평가와 다르다.

우스농사를 시작한 농가와와는 커다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필자가 조사한 서귀포시 법환동인 경우, 바나나가 집중적으로 재배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충격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고 거론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바나나 재배농가는, 바나나 재배 종료 이후, 즉 1992년 이후, 당시 정부에서 권장하던 시설감귤 재배를 회피하고 대신 알로에회사와의 계약재배를 선호하여 약 2년간 알로에를 재배한 경험이 있다. 이는 알로에 재배의 의미는 알로에회사가 바나나 재배농가들이 바나나 재배에서 습득한 경험과 기술을 인정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재배농가 역시도 바나나 재배과정에서 얻어진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알로에를 재배하기가 훨씬 수월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바나나에 이어 알로에를 선택한 점으로 보아, 바나나 재배의 경험이 작물선택에서 재배, 유통에까지 농민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적극적 의사결정자세, 주체적 경영태도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바나나 재배의 결과에 대한 재배농가 스스로의 평가는 당시 재배농민의 회고에서 그 단면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바나나로 인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설이야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정도의 수업료를 내고 배운 바가 많았고 생각한다”.

Ⅲ. 바나나 재배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 17) 필자의 주 연구지역인 서귀포시 법환지역에서 특히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법환지역인 경우 일제시대부터 일본으로 왕래가 많았던 관계로 일본의 선진농법 혹은 경영기법이 소개되는 기회가 많았고 재일교포자본의 유입으로 항상 새로운 투자대상을 모색하는 사회분위기 등으로 타지역보다 농업경영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주체적 역할을 내재하고 있었다는 제주도 농업에 있어서 농업기술 뿐 아니라 농업경영면, 농민의식 측면에서도 외부와의 교류로 인한 영향, 특히 한말,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이어온 일본과의 교류에 인한 영향은 자못 크다. 감귤, 바나나 등과 같은 작물의 재배 뿐만 아니라 제주도 농업사 전반에서 이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감귤경제는 도입 초기부터 제주사회에 많은 변화를 주었고 상당 부분 이미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감귤인 경우, 토지이용도의 변화에 따른 가치재평가, 그로 인한 부의 이동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가상승, 경제적 격차 증가, 기존 사회관계의 재편 등으로 이어졌다(김준희 1984: 106-149). 이러한 경제적 측면과 함께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어지는 부정적 측면으로 농업퇴보(Agricultural Involution)의¹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감귤경제의 영향을 고려하여 바나나 재배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가상승의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바나나 재배봄과 함께 남원읍 근교 지가가 상승하였는데 1986년 8월 남제주군에 의하면 남원읍 위미와 태흥, 신흥, 표선면 국도변과 국도 남쪽의 경우 지가가 평균 20% 이상 상승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가와 임대료는 기후조건이 작용,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역에 오름세가 나타나는데 주로 서귀포시 바나나 재배농가가 서귀포시 재배적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급속한 전력사용증가, 저소득 작물 재배농가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현상도 한시적이거나 나타났었다. 정부는 바나나 주재배지역이 서귀포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주로 부농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지역간 혹은 지역내 부의 편재를 우려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감귤경제로 인한 지역간 부의 편재, 지역내 부의 격차 등을 경험한 데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바나나 재

18) 키어츠(Geertz)에 의하면 상업적 농업의 진정한 의미는 생산물을 판다는 단순한 교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을 상품화하고 판매하는 데 더 큰 이윤을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에 있으며 따라서 농업의 전문화, 경영의 합리화 등 새로운 생산수단 기술 등의 도입 등을 동반한 일련의 개혁들에 의해 상업적 농업은 가능하며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결여된 채 단지 생산물만을 시장에 판매하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시장변동에 좌우되어 종속되어 갈 때 이때의 농업상황을 농업퇴보라고 한다.

배의 경우 재배기간이 짧았고 결과가 감귤경제와는 다르게 나타난 이유도 있었겠지만 바나나 재배에 뛰어든 진정한 의도가 투기적이 아닌 적극적 투자라는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초기 감귤 재배를 시작한 세대가 주로 1930년 전후이었으므로 이들은 현상황에서의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하면 더 이상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김준희 1984: 146).

또한 많은 감귤 재배농가가 제주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타 직업 겸업농가¹⁹⁾ 혹은 노령화되었거나 독신노인농가들은 현 상황에 대한 강한 안주욕구가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나나를 재배한 농가들은 주로 전후세대로 감귤경제에서 상당한 경제적 안정을 경험하였지만 기존 감귤경영에 자기나름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감귤경제에서 얻은 자본, 영농경험을 바탕으로 감귤경제 도입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경영모색의 욕구가 결합되어 작물선택에서부터 원가절감, 생산성증대, 시설효율화, 유통개선 등 농업경영에 대한 계속적인 개선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바꾸어 말하면 농민 스스로의 경험학습에 의한 농민의식의 체계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바나나 재배가 감귤경제에서 영향과 그에 더한 발전적 시도라고 보아진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감귤경제의 확산으로 농업퇴보의 현상이 만연해 가고 있었던 시점에서 '바나나 재배'라는 새로운 시도는 분명 제주도농업사에서 평가해야 할 사실이다.

이상에서 바나나 재배동기에 대한 의의를 분석해 보았다. 다음은 바나나 재배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감귤을 비롯한 환금작물 재배의 증가는 임노동력의 증가를 가져왔고, 계절

19) 감귤재배인 경우 과수원조성 초기에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투하되어 그 후 묘목이 일정 수준이상 성장하고 과수원이 안정적으로 되면 전업이 아닌 부업으로도 충분히 영농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즉 공무원, 교직, 회사원 등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부인노동력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여 과수원을 돌보고 노동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수확기에는 임노동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겸업농가가 많다.

적 수요변동에 따라 노동력 부족현상과 같은 문제도 대두되었다. 바나나 재배의 경우, 초기 하우스시설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자가노동력으로는 충당하기 어렵고 각 분야의 전문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의 임금은 한창 성수기였던 1985년에서 1990년까지 주변인력을 끌어들이기 만큼 고임금이였다. 심지어 다른 직장에 종사하던 인력 등도 하우스시설에 투입되기도 하였고 서귀포 지역에는 감귤수확기와 맞물릴 때면 새벽인력시장이 형성되기도 하였다(제주신문 1990. 4. 26일자). 이들 임노동자들의 임금은 타직종에 비해 고임금이였고 당일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고 늘어나는 하우스시설로 인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였다. 바나나 재배농가로서는 인건비지출이 상당한 부담이었지만 임노동자의 경우는 급격한 소득의 증가로 앞서 언급한 과소비, 향락적 소비로 흐른 감도 없진 않다.

또한 가족내 부부간 노동구조에서도, 바나나 경제인 경우 노동의 내용을 보면 물론 여성의 인력도 필요하지만 타작물에 비해(논농사나 감귤농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성의 노동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남인회 1985: 177).

<표 3> 바나나 재배 노동력 투하내용 (시간300평당)

구분\작업 내용	비닐덮기	관수	병충해 방제	일반관리	수확	제초	계	
자가	남	20	50	8	50	30	8	158
	여	8	40	8	24	16	0	100
고용	남	80	0	0	0	0	0	80
	여	0	0	0	0	0	48	80

높은 인건비로 인한 생산비의 증가압박은 이에 대한 여러 각도의 대응책을 모색하게 되는 데 그 중 하나가 상호노동력 교환체제이다. 예를 들면 농우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는 5~10쌍의 부부가 같이 가입하여 회원간에 노동력을 교환해 나간다는 목적하에 자발적으로

설립되어진 것인데, 회원간의 분업 등을 통해 노동숙련도를 향상시키고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할 수도 있다. 노동력절감과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노력은 일정업무량에 대해서 책임자 한 사람에게 도급을 주면 그 책임자의 전체적 인솔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형태 등도 생겨나게 하였다. 이 형태의 장점은 숙련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노동력 절감과 생산효율성을 고려하고 부부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규모 일반적으로 1,0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여 자가노동력에 대한 인건비만이라도 확보하려는 시도가 바나나 재배 후반에 나타나게 된다.

노동력 측면과 함께 중요하게 나타난 현상은 수입구조와 그에 따른 농가소비의 구조이다. 바나나 재배농가의 수입구조는 바나나 수확시기가 감귤과는 다른 관계로 감귤 재배농가와와는 다른 연간 수입구조가 나타난다. 즉 감귤이 경우 매년 늦가을 경에 수확을 시작하여 일정기간 저장 후 출하하는 것이 상례여서 대체로 1~2월달에 수입이 절정을 이루어, 이 시기에만 수입이 지출을 초과를 하며 그 이후에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바나나는 총생산의 60%가 봄, 30%가 가을, 여름·겨울 5%로 감귤에 비해 연중 내내 수입이 있어 현금보유 기회가 많은 실정이다.²⁰⁾ 이것이 소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특징은 그러지 못한 농가 예를 들면 감귤 재배농가나 타작물 재배농가에게 있어서는 과소비

20) 농가수입의 계절적 변동을 살펴보면 미곡재배지역인 경우와 상품성작물 중 과일 채소 등과 같은 재배 지역의 계절적 수입구조는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10월, 11월, 12월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가을 과수재배농가인 경우 1~2월까지 수입이 이루어 진다고 한다. 반대로 4월이 수입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구조는 연중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6월, 10월, 11월, 12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 계절은 3월부터 6월까지이다(전창곤 1986: 153-166). 감귤 재배농가인 경우 노지재배인 경우 12월에서 2월에 수입이 이루어 지고 시설감귤이나 조생종인 경우 이보다 다소 빠르다. 따라서 바나나와는 전혀 다른 계절별 수입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계절적 지출구조도 다르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서 소비형태와 현금보유기회까지도 다르다. 바로 이 점이 감귤농가나 타작물 재배농가가 바나나 재배농가의 소비를 과장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혹은 향락소비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상품이 출하 및 유통에도 남자가 직접 간여함으로 소득 역시 남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타작물의 경우에 비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즉 감귤이나 타작물의 경우 수확기가 연간 1회에 국한되어 있고 단 1회의 수입으로 1년 동안을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의 관리는 주로 주부인 여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바나나인 경우 수확기회가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 시설설치, 유지, 영농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 또한 수시임으로 이에 대한 지출을 위해 남자가 현금을 보유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의 경제권에 대한 문제로 새로운 가정내 문제 및 역할관계를 야기시킨다.²¹⁾

마을내 인간관계나 조직관계가 감귤재배로 인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미되어 재구성되어졌고 전통적 질서가 붕괴되어감을 지적하는 사례가 많다(김준희 1984: 106-148 ; 김창민 1995: 160-182). 이런 측면이 바나나 재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바나나 재배는 시간적으로 단기간이었고 바나나 재배농가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 가장 집중적으로 재배가 이루어졌던 서귀포시 법환지역의 경우에도 전체 농가의 30%였다 -. 사회조직의 재편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의 첨예화 등과 같은 문제는 그리 심각하게 표출되지는 않았다. 다만 서귀포시 법환지역의 경우 바나나 재배농가 대부분이 대체작물로 전환한 청견작목반(서귀포농협 법환지소 소속으로 5개의 작목반이 있는데 노지감귤반 2, 시설감귤반 1, 청견반 2, 화훼반 1이다.)은 타작목반에 비해서 유달리 결속이 강해서 집안대소사에도 형제보다 더 강한 우애를 보여줄 정도의 결속력을 과시한다. 이것은 바나나 재배의 경험과 좌절을 같이 경험

21) 당시 재배농가의 남자들에 의하면 각종 경조사비, 인간관계에 필요한 사교비 심지어 유흥비 조달과 같은 문제가 감귤재배시에 비해 훨씬 용이해졌고 따라서 이로 인한 자잘한 마찰은 방지할수 있으며 자녀에게 있어서도 종래와는 다른 경제적 측면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수확기회의 분산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남자에게 현금소유의 기회가 많아졌음을 말해준다.

한 데서 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결속력이 타작목 반이나 친족, 마을조직과 갈등관계에 있게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안정적 균형의 상태를 유지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국가권력 주도하의 종속적 독점자본주의 형성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수입개방은 상업적 농산물의 순환적 가격파동 등으로 이어져 심한 경우 농민의 생산기반, 생존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에 대한 농민들의 격렬한 항의투쟁, 조직적 농민운동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바나나 재배가 실패로 끝났고 그 충격이 지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나 재배농민들이 항의시위나 조직적 농민운동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자세히 분석해 보아야하겠으나 바나나 재배농가의 비중이 부분적이었고, 농민운동에 대한 경험부족 등이 표면적 이유였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여겨지는 근거는 만약 감귤에 있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아무런 동요나 항의시위, 농민운동 등이 나타나지 않았느냐하는 가정에서 유래한다.

바나나 재배는 단기간, 일부농가에서의 농업경영에 불과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는 마을 전체에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서귀포시 법환지역의 경우, 바나나 재배가 끝난 이후 부채로 인한 도주, 보증인의 부담증가, 인접경제로의 파급효과 등으로 전반적 경기위축 현상을 가져왔으나 당초 우려와 달리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갔다.²²⁾

마을전반의 소비와 근로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더 이상 술값으로 기백만원을 소비한 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겨울철 농한기나 마을 대소사때면 으레 펼쳐지는 노름 역시 놀이문화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마을 전체의 자정노력이 보여졌다. 근로에 대한 인식도

22) 서귀포농협 법환지소의 저축액증가를 보면 1990년 13억6천9백원에서 1991년 15억2천6백원으로 1995년 42억8백원으로 1990년에서 1995년까지 무려 3배 이상 저축액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소득의 증가와 아울러 바나나경제에서 자기가본 빈약에 기인한 위험부담을 경험한 결과로 보인다.

전환되어간 예로 바나나 재배의 좌절로 인한 부채를 감당못해 일본으로 도주한 바나나 재배농민들은 그들은 일종의 '제팬 드림'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일본에서의 막노동임금으로 본래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 다시 입국한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한 일본 근로자들의 근로의식, 성실성과 같은 면에서 자신들을 반성하고 예전보다 훨씬 성실한 근로자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는 바나나 재배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³⁾

하지만 여전히 회사 혹은 공무원 등 저임금, 저직급에 종사하려 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어보이는 잠재적 실업인구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생겨났다.²⁴⁾

지역사회 외부요인에 대한 인식 특히 정부와 기업에 대한 인식은 불신의 정도가 심화되어 갔다. 정부에 대한 인식부터 살펴보면 정부는 재배초기부터 재배억제정책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항상 갈등관계에 있었고 산업구제신청이나 피해보상시에서도 농민들에게는 흡족하지 못한 존재였다. 또한 정치적 논리에 의한 선심성, 공약성 발언의 남발은 항상 '혹시나' 하고 믿었던 바나나 재배 농민뿐 아니라 제주도농민 전체에게 이번에도 '역시' 하며 해묵은 감정까지 자극시켰다. 따라서 정부의 장려방침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였고 정부란 존재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만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바나나 수입개방 이후 대기업,²⁵⁾ 심지어 제주도 농가에 골판지

23) 서귀포시 법환지역의 경우 취업 등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일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판동지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는데 물론 바나나 재배 이전부터 일본으로의 왕래는 많았으나 근로자세나 의식의 차원에서 일본의 성실성을 본받자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바나나 재배 후 나타난 '대판동지회'의 특징이라 하겠다.

24) 서귀포시 법환지역 출신으로 서귀포시청을 비롯한 관공서에 근무하는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적고 여타 보다 나은 지위향상을 위해 미래를 위하여 인내하며 현재를 투자하는 분위기가 상당부분 소멸해갔다고 한다. 이 지역은 과거부터 학자, 고위직공무원 등의 숫자가 타지역에 비해 많았다고 하나 현재는 장차 시의원후보조차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자조어린 여론이 빈번하다. 그 이유는 바나나 시설이 붐을 이루었을 때 인근산업에서 누린 호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를 납품하던 중소기업까지 바나나 수입에 열을 올려 농협을 중심으로 한 범도민 바나나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물에 관해 정밀한 검사도 없는 채 마구 수입하여 도민감정을 자극시켰다.²⁶⁾ 이로 인해 바나나 재배농민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가 정부와 대기업이 주가 된 수입업체들에 대한 반감이 거세었다.

이 과정에서 바나나 재배농민들의 뇌리에는 정부, 바나나 수입기업, 육지부 농민(사과, 배 재배농민)연합 대 바나나 재배농가의 일방적 갈등이라는 피해의식이 강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강자와의 갈등관계에서 바나나 재배농가들이 내면에 잠재하는 의식이란 역사적으로 체득되어져 왔고 바나나 재배과정에서 훈련되어진 확고한 자아의식으로 파악될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우리 나라의 농업은 농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존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농업문제는 경제적인 접근보다는 정치적 접근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왔다. 심지어 정권이 선심성 행정에 늘어나기도 하고 따라

25)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연간 바나나소비량은 1.1kg(1989년)으로 일본 6.3kg, 미국 9.4kg, 프랑스 8.3kg에 비해 훨씬 적다는 판단하에 소비잠재력이 큰 만큼 수입선을 확보하고 유통망을 선점하기 위하여 각종 전략을 짰다. 이러한 국내 수입상들이 과다경쟁으로 수입원산지 가격상승을 유발한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1991년 대기업들의 바나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롯데그룹계열의 그린월드가 7천7백톤, 럭키금성 계열의 태주상사 3천톤, 코오롱 계열의 선팍 1천톤 등이고 이외에도 삼성, 쌍용 등도 나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 1991년 에쿠아도루산 수입바나나를 먹고 구토를 일으킨 도민들이 생겨나 사회문제화되었고, 1991년 초기 수입바나나를 제주산바나나로 속여 판 사건이 생겨나기도 하였다(제주신문 1991. 7. 7일자). 이런 사건들로 하여 바나나재배농민 뿐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가 정부와 대기업에 대한 반감과 편견을 증가시켜 가게 되었다.

서 국가와 사회에 의존하는 농업이 되어왔고 농민들은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사실이다.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제도 등과 같은 문제는 국가가 해야 하지만 영농활동에 필요한 의사결정 예를 들면 작물선택, 영농비 절감, 생산성 증대 등과 같은 문제는 농민 개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국가는 그것을 가능한 자유롭게 뒷받침해줘야 한다.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국가와 사회목표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농민자신의 후생증진을 위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도 농민이 바나나 재배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즉 농민자신의 자발적 훈련과정이었다고 평가되어진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는 하지만 연관산업분야의 활성화, 하우스시설, 하우스농법과 기술 습득 등을 고려했을 때 제주도 농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한 최초이고 발전적 시도였다고 보아진다. 이 시도에서 제주도농민은 농민 자신의 자신감과 주체적 역량을 체험적으로 습득해 가는 값진 결실을 거두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감귤 재배로 인해 제주지역의 농민은 고소득을 경험했고 계속해서 그 향수에 젖어 더 이상의 시도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바나나 재배로의 모색은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서의 과감한 투자,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자발적, 주체적 자기역량, 정책의 무관심, 억제 속에서도 종자선정 등에서부터 재배기술개발, 노동력이 효율적 배치시도, 생산비절감, 출하 및 유통합리화, 농촌소득의 적절한 분배와 소비, 소득의 재투자로 이어지는 전체적 영농과정에 있어서 종전보다는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제주도 농민의 경영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바나나 재배가 제주도의 농업사, 농업경영사에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나나 재배과정에서 나타난 제주도 농민의 주체적이고 발전적인 농업경영의식이 현 감귤경제의 막다른 위기를 구조적이고 근본적으

로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준희

1984 “감귤재배에 따른 농촌의 경제적 변화”, 『인류학논집』 7 :
pp. 106-161, 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소.

김창민

1995 『환금작물과 제주농민문화』, 서울 : 집문당

남인희

1985 『제주농업의 백년』, 제주 : 태화인쇄사

박성결

1988 “하향성 농업생산위험과 위험감소 생산요소 배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농촌경제』 11-1 : pp 147-157, 농촌경제연구원.

서귀포시

1986~1993 『서귀포시통계년보』

심영근 · 이상무

1995 『농업경영학개론』, 서울 : 농림수산정보센터

월간관광제주

1984. 12월호 기사

1986. 9월호 기사

1988. 8월호 기사

1989. 6월호 기사

유병서

1988 “개방경제에 대응한 농산물교역과 농업개발방향”, 『농촌경제』 11-3 : pp. 65-77, 농촌경제연구원

전창곤

1986 “농가수지의 계절성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9-4 :
pp. 153-167, 농촌경제연구원.

정영복편역

1989 『농업경영』, 서울 : 부민문화사

제주도

1992 「제주경제지표」

제주신문

1989. 5. 1일자 기사

1990. 4. 26일자 기사

1990. 9. 2일자 기사

1991. 1. 2일자 기사

1991. 7. 7일자 기사

최양부

1989 “우리 농업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산업화와 농업경제의 동태적 관계』, pp. 1-88, 농업경제연구원.

A Study on Cheju Farmers' Consciousness Shown in the Agricultural Management Through Banana Cultivation

Jin, Kwan-hoon

Tamla Culture Rrsearch Institute,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heju farmers' consciousness and managerial decision-making process in cultivating bananas. Banana cultivation has been made for rather a short period of time in Cheju province and it has turned out to be a failure. Generally, negative evaluation has been given to banana cultivation in Cheju province. In this paper I want to focus on Cheju farmers' attempts to cultivate bananas, not the outcome of their banana cultivation. It was a meaningful and advanced attempt for Cheju farmers to decide to begin cultivating bananas. Tangerine cultivation has accounted for a large part of Cheju agriculture. Even now the importance it has on Cheju agriculture is so absolute that its cultivation is very helpful to Cheju farmers economically. Cheju farmers have led their lives and earned more money through the cultivation of tangerines than any other farmers of other provinces. In this situation, it is natural for them to avoid making attempts to cultivate any other kinds of crops: they have stuck to the cultivation of a profitable crop, tangerine, because of their market-oriented consciousness. This behaviour is called "agricultural involution". In this respect, their managerial decision to cultivate banana may be estimated to be positive and from an aspect of conscious shift, progressive. Through the cultivation of bananas Cheju farmers have shown their own subjectivity clearly, rational recognition and experienced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mselves.

The uncertain and risky attempts to cultivate banana were made at

first and the primary attempts gained some profit through banana cultivation. But as time went on, the farmers found it difficult to gain profit through the cultivation of banana. After all, they had to suffer a lot of initial loss and banana cultivation in Cheju province proved to be a failure. Generally, when only the result of banana cultivation is considered, it is likely to be regarded as a failure and given negative comments. But from another point of view, I want to try assessing the positive outcome of banana cultivation in Cheju province. Though banana cultivation failed, The attempt itself to cultivate banana provides us with good lessons worth being considered. The experience of banana cultivation has helped Cheju farmers cultivate other crops and develop agricultural technique. Farmers have become more rational through their new attempt and experience. Through rational planning and efforts in farming, they intended to pursue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Cheju agriculture.

In conclusion, banana cultivation was an epochal event in the history of Cheju agriculture since we can see developmental, advanced and investing, not speculative, consciousness they showed in the process of banana cultivation. Therefore, in this regard, the cultivation of banana in Cheju province needs to be reevaluated with its positive aspects focused on.@